▪ 교회소식 ▪

1.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오늘만 1시 20분에 시작).
2. 사진전시회 : 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교회 역사 사진전시회가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전시 장소는 예배실 2층 복도입니다.
3. 특강 : 다음 주일 오후집회 시간에 안성영 목사(사랑교회)의 특강이 있습니다.
4. 대청소 : 28일(토)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5. 헌물감사 : 교육관 의자를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6. 신앙실천 : 27일(금)에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행 13:4-12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재흥	조항미

4월				
	1부 영접위원	이국노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한성건 설규범 이현순 김윤정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이현순 정현선 정영례 박진숙 임옥기 유병선 박종철 추헌영		
다음주식당봉사	박홍재 정연희 안미순 김태정 김영희 윤성종 김태한 한상균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이동천

2018-16 4월 22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미세먼지와 황사가 날리는 중에도 자기의 빛깔대로 피어나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그 꽃의 향기는 얼마나 향긋한지요. 주님, 우리도 시대와 상황을 불평하며 멈추어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꽃피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5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회담이 상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엡2:14a,16b ····· 인도자

▲ 교 독 문 ····· 102. 나라 사랑(4)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하현철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잠 15:28-33 ····· I. 인도자 II. 남명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 마중물 찬양대

II. 시편 23편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대정 곽새롬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명숙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지명주 김필순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마재국 손의나 박경애 박기영 박상욱 임서영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박영진 박영희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송병찬 송인선 신영욱 신현일 양경해 오진훈 노순옥 오현우 우경환 유수진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용석 이은주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지하 이한림 김명희 이현죽 정승희 주은경 최소라 고인성 최 숙 최윤화 최진성 최영은 허호범 박성실 현 진 홍춘숙

감사헌금

김성수 김와니 권윤경 김향자 박기태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윤 오민용 오진훈 노순옥 이고임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지웅 이현죽 임은영 임종수 장의림 정구봉 정순욱 정승훈 이주연 정영례 무명2

생일감사헌금

최윤희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창숙 박영림 안현숙 이고임 정효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그 사람을 가졌는가

-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 씀	**책망에 귀 기울이라**	김기석 목사
거룩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53.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악한 말은 삼가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밝은 얼굴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십시오. 무엇보다 책망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말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책망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충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신진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110주년 기념 청파교회의 역사 연재(3) ■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

박정오 목사는 1931년 8월 25일 경기도 개성 덕암동 1844번지에서 태어나 송도고등학교 졸업반 때 월남했다. 1951년 10월, 2년 동안 유엔군 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의 행정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1954년 3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1958년 3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충남 아산의 남창교회를 담임하는 것으로 목회를 시작하였고, 1963년 3월부터는 경기도 평택 객사리의 성광교회로 옮겨 헌신하다가 청파교회의 부름을 받았다. 1966년 3월부터 1970년 3월까지는 부목사로 시무하였고, 신흥철 목사가 은퇴한 후인 4월 5일 주일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1997년 3월 서울연회에서 자원은퇴하기까지 청파교회에서 31년 동안 헌신하였다.

박정오 목사는 목회자들이 딸린 가족 때문에 소신껏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 결혼을 않다가 40세가 되던 해인 1970년 신흥철 목사의 주례로 장민숙과 결혼하고 외동딸 시내를 낳았다. 딸 박시내 집사는 “당당한 체구에 강직한 성품,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열정적 설교를 한 분”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어려워한 분도 많았지만 마음속에는 인자하심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분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말년에는 양안에 실명이 왔고 오랜 투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하였으나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 좌안시력이 다소 회복되었고, 은퇴 후 10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온 교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

박정오 목사의 목회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생활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회철학으로 인해 박정오 목사는 교회 생활의 전통적인 요소, 즉 교회 출석, 시간 엄수, 성경읽기, 기도 생활, 헌금 등에 대하여 강요하지 않았다. 극히 초보적인 권유나 어떤 형식과 율법적인 신앙에 묶어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한 차원을 높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택함 받은 자녀로서 경건한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르고 옳게 사는 기쁘고도 즐거움이 넘치는 참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교인들은 교회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생활만을 지키는 형식적 교인보다 기초에 충실하고 내용 있는 ‘알찬 교인’,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이기를 강조하는 박정오 목사의 목회원칙과 철학은 이러한 기우를 떨쳐냈다. 박정오 목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교인들에게도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쳤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이란 말은 1973년 교회 표어로 제시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로 이후 청파교회를 상징하는 표어가 되었다. 박정오 목사와 교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서로를 신뢰하며 힘을 합쳤고, 그 결과 청파교회는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박정오 목사는 당뇨합병증으로 1997년 서울연회에서 자원은퇴 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7년 3월 20일에 별세하였다. 장례예배는 박 목사가 41년 몸담았던 교회 예배당에서 전 교인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었다. 축도는 평소 박정오 목사가 존경하던 김봉록 감독회장이, 추모사는 송도고등학교 동창이며 정동제일교회 담임자였던 이재은 원로목사가, 설교는 30년 가까이 박정오 목사를 인생선배와 목회선배로 존경하던 김기석 목사가 했다. 하관은 효창교회 담임자였고 박정오 목사의 50년 지기인 김연기 원로목사의 트럼펫 연주 가운데 엄수되었다.

박정오 목사와 40년을 함께 살았던 장민숙 사모는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08년 9월 20일에 별세하였다.

-「청파교회 100년사」 중에서